

민생안정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8배 정진



발원문 내용은 무엇인가

“불교 먼저 자성하고 변화 국민과 함께하는 발원”

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생안정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8배 정진'은 한국불교가 그동안 종교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에 대한 참회로 시작했다. 한국불교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군사정권을 거치는 동안 자정성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절박한 위기상황까지 처했다.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 사회와 역사의 발전도 견인하지 못하는 등 종교본연의 역할마저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매몰됐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같은 한국불교의 지난 모습에 대한 참회 발로의 첫 걸음이 바로 '민생안정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8배 정진'이다. 지난 10일 108배 정진에 앞서 가진 발원문 낭독을 통해 “오늘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참회와 발원을 기점으로 현재의 상황을 약으로 삼아 불교계가, 조계종단이 먼저 자성하고 변화하겠다”며 한국불교의 자성과 변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108배 정진은 지난 과오에 대한 참회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국불교로 거듭나겠다는 변화와 쇄신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민의를 저버린 밀어붙이기식의 국정운영과 전통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방위로 펼쳐지는 불교편취에 맞서 불교 스스로 우리 전통문화를 수호하겠다는 서원이 곧 민족문화수호운동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국가 예산안을 날치기와 폭력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안정과 민주주의를 저버렸다. 특히 17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걸어 온 불교를 단순히 하나의 종교로 인식하는 천박한 전통문화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만큼 한국 불교는 더 이상 정부 여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특정 종교인이나 집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불교편취가 최근 들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문제를 파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웃종교인과 함께 종교평화와 화합을 지켜나간다는 원칙과 서원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나감으로써 국민은 물론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인류문화유산'으로 승화시켜 소중하게 보존 및 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발원은 정부 여당이나 특정종교와의 갈등 내지는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한국불교가 종교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국민과 뜻있는 이웃종교인과 함께 묵묵히 걸어오겠다는 확실한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조계종은 이같은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 종교평화의 길이 비록 험경고 어렵더라도 긴 호흡으로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배, 1배를 서두르지 않고 거듭하면 곧 108배가 되듯, 긴 호흡으로 한 발, 한 발 국민과 함께 내딛다 보면 발원이 곧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문화수호위원회는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 연원이 108배 정진이라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임을 재천명하며 발원문을 마무리 지었다. “1700년 이 땅에 뿌리내려 온 한국불교의 오늘이 부끄럽지 않고 모든 이웃과 인류에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내일이 올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 발원합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영하의 날씨 ‘청계광장’ 녹인 불심

혹한의 날씨에도 민생안정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정진의 열기는 대단했다. 이날 108배 정진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뿐 아니라, 산하기관 종무원들과 불교신문사 직원들도 함께 했다. 사진 신재호 기자



종무원 문화부장 호탄스님의 족비에 맞춰 1배, 1배를 올렸다.



체감온도 -20도가 무색한 정진열기.



사부대중 300여명이 조계사에서 청계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청계광장을 찾아 108배 정진을 회향한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종무원들을 격려했다.

The zen of Alice

2010년 올해의 좋은 불서
The Best Buddhist Writing 2010

앨리스의 황홀한 선禪 탐험기

매혹적인,
그러나 알 수 없었던 세계, 윈더랜드!
불교적 시각으로 완벽히 풀어낸다.

맑은 음악이고, 흔히 '춤'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윈더랜드》에 실린 말들을 읽는다면 더 깊은 음악을 듣게 될 것이고 춤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로버트 버키 | 광대, 배우, 감독, 극작가

출래, 말래, 출래, 말래, 춤추지 않을래?

윈더랜드
The zen of Alice

지은이 데니얼 도엔 실버버그 • 옮김 진우기
소프트 양장 • 156쪽 • 값 10,000원

흥선 스님의
한시읽기 한시일기

이미 눈 밝은 독서가들에게 아름답고 단아한 글로 정평이 나 있는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흥선 스님이 펼치는 인문의 세계로 빠져보자!

산사의 일상과 자연, 언어의 감흥이 함께한

맑은 바람 드는 집

맑은 바람 드는 집

글 · 흥선 | 284쪽 | 윌클러 | 13,500원